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년 7월 11일



복음 나누기

연중 제15주일(7월 11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마르 6,7-13)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림 정미연 소화대레사 | 화가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 파견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파견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가난을 키우고, 또 온전히 자신을 비울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일지라도 가늠키 어려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소서.
- 주님, 저희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7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8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9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10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 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11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12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13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마르 6,7)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합니까?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마르 6,9)

필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고 소유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족하면 청하고 없으면 매달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악한 영에 대한 권한'을 주십니다. 악령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지만 '하느님의 힘'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힘에 이끌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이고, 선교요 전교입니다. 복음 선포에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다른 것은 준비 못해도 '이 힘'은 지녀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제도'를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갖추고 많은 이가 동참하면 '힘'이 생긴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누가 어떤 마음으로'가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를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